

Are You Read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23. 5. 3 (수)

meritz Strategy Daily

전략 공감 2.0

Strategy Idea

미국, 한국 1Q23 실적 서프라이즈

: 이익 턴어라운드 가시화, 밸류 부담 축소

칼럼의 재해석

애플의 AI 챗봇은 어디에?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Idea



▲ 퀀트/ETF

Analyst 이정연

02. 6454-4895

jungyeon.lee@meritz.co.kr

미국, 한국 1Q23 실적 서프라이즈 :이익 턴어라운드 가시화, 밸류 부담 축소

- ✓ 미국, 한국 1Q23 실적 예상치 상회. 한국 영업이익, 순이익 예상치 대비 12%, 26% 상회
- ✓ 미국 경기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정보기술 업종 예상치 10% 이상 상회. 한국 자동차, IT가전(2차전지), 기계 20% 가까이 예상치 상회
- ✓ 4월 기점으로 이익 턴어라운드 나타나며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 실적발표 전후로 이익전망 상향조정, 이익성장 기대감 유효한 업종으로 수급 확산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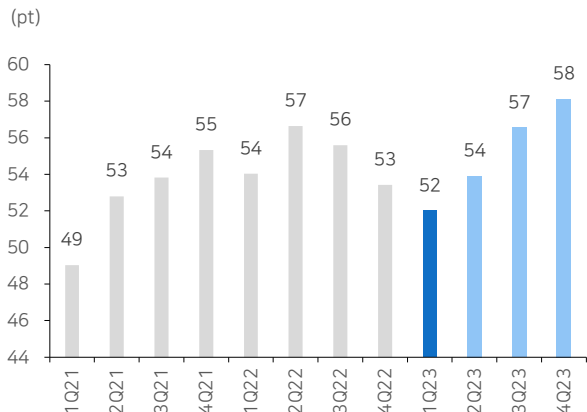
이익하향 조정 가운데 증시 반등

올해 글로벌 시장이 반등함에도 신중론이 여전하다. 제조업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추가 악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즉, 최근 주가는 EPS 하향 조정 속에서 반등했기 때문에 부담이 있다. 다만,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이익 성장(QoQ기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분기 실적 결과에 따라 향후 이익전망에 대한 신뢰 여부와 증시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긍정적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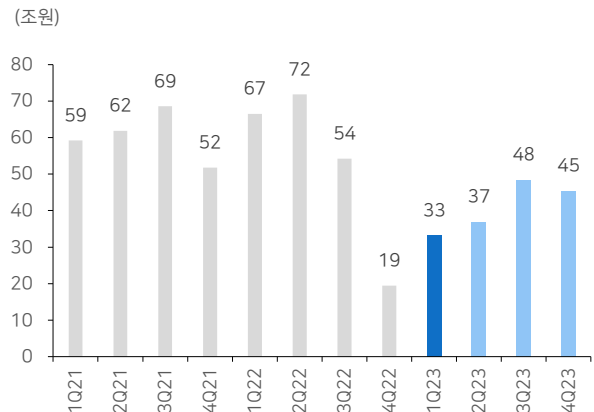
1분기 실적시즌은 약 70%(시총기준) 진행됐다. 1분기 실적시즌 직전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금융 리스크까지 부각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깊어져 있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흐름이다. 따라서 이번 자료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1분기 실적 현황을 살펴보고 업종별, 종목별 특징적인 부분들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그림1 S&P500 분기별 EPS 확정치&추정치



자료: Eiko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KOSPI 분기별 순이익 확정치&추정치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S&P500 실적 매출액, 순이익 예상치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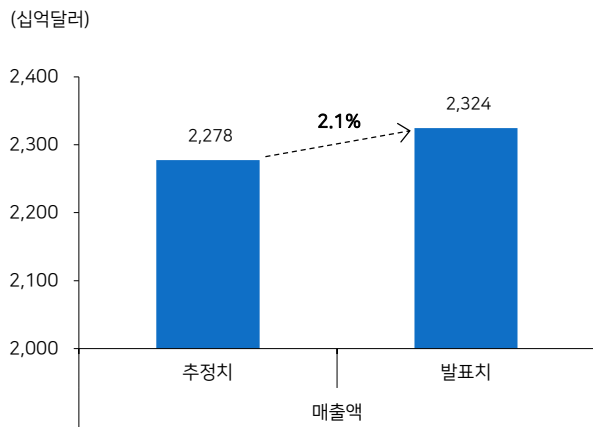
미국 1분기 실적 과거 평균 수준
뛰어넘는 상회율 기록

1Q23 실적시즌에서 우려했던 어닝 쇼크는 없었다. 매출액, 순이익은 예상치 대비 각각 2.1%, 7.0% 상회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매출의 경우 소재 업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 금융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형 은행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그 외, 금리인상과 은행권 불안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DR Horton, Pultegroup도 매출액이 예상치 대비 상회한 것이 특징적이다.

순이익: 경기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정보기술 업종이 예상치
10% 이상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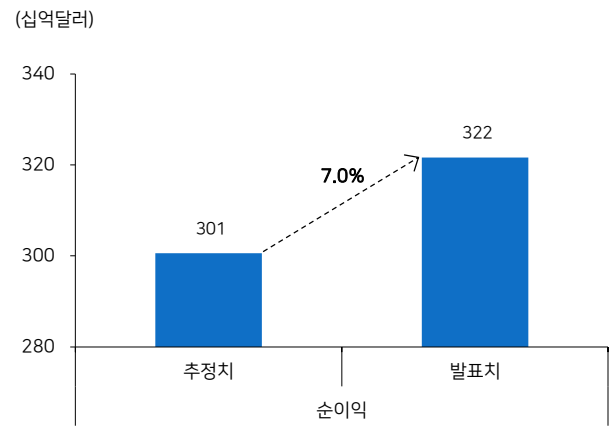
순이익의 경우 경기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정보기술 업종이 예상치를 10% 이상 웃돈 실적을 발표했다. 경기소비재 업종 내 카지노/리조트, 주택건설, 자동차 관련 종목의 실적 서프라이즈는 지난 4분기에 이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업종 내 구글, 메타는 광고 시장침체 속 1분기 실적에서 수익성 개선세가 확인되며 연간 이익전망치가 상향조정 되는 것도 이번 실적시즌을 전후로 나타난 특징적인 변화다.

그림3 S&P500 매출액 추정치 vs 발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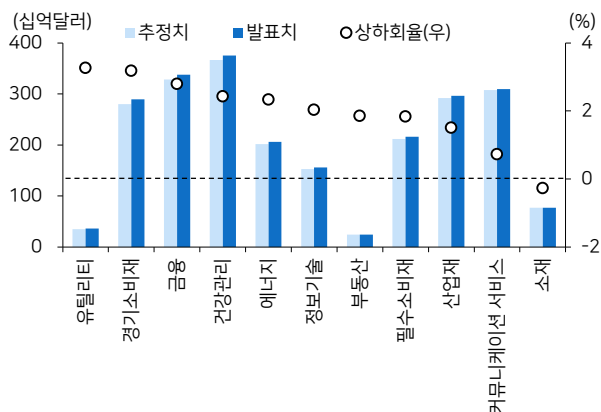
자료: Eiko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S&P500 순이익 추정치 vs 발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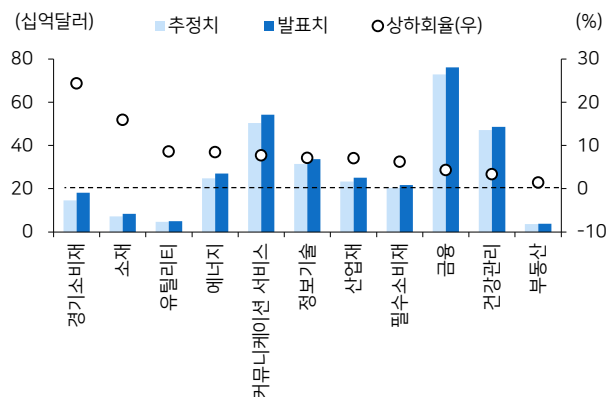
자료: Eiko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업종별 매출액 추정치 vs 발표치



자료: Eiko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업종별 순이익 추정치 vs 발표치



자료: Eiko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S&P500 구성종목 실적 상하회 TOP10 리스트_시총대비 기준

표1 1Q23 매출액 상하회 TOP10 종목 리스트_시총대비 기준

티커	이름	업종	예상 (십억달러)	실제 (십억달러)	시총 (십억달러)	시총대비 (%)	기업내용
FRC	First Republic Bank	금융	1.1	1.2	0.7	9.4	미국 상업은행
CNC	Centene Corp	건강관리	36.0	38.9	37.7	7.6	의료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WBA	Walgreens Boots Alliance	필수소비재	33.5	34.9	29.9	4.5	약국 체인 관리, 운영
DHI	DR Horton Inc	경기소비재	6.5	8.0	37.0	4.1	미국 최대 주택 건설 기업
GM	General Motors Co	경기소비재	38.7	40.0	46.5	2.7	완성차 제조, 판매
VLO	Valero Energy Corp	에너지	35.4	36.4	41.7	2.5	운송 연료, 석유 화학제품 생산, 정유 시설 운영
PHM	Pultegroup Inc	경기소비재	3.3	3.6	14.7	2.1	미국 주택건설 기업
WHR	Whirlpool Corp	경기소비재	4.5	4.6	7.7	1.9	주방, 세탁 가전제품 판매
MGM	MGM Resorts International	경기소비재	3.6	3.9	17.2	1.6	카지노, 리조트 그룹
C	Citigroup Inc	금융	20.0	21.4	92.0	1.6	금융지주사
DTE	DTE Energy Co	유틸리티	4.8	3.8	23.3	-4.5	전기 에너지, 천연가스 생산, 구매, 운송, 판매
KMX	Carmax Inc	경기소비재	6.0	5.7	11.1	-2.9	미국 최대 중고차 딜러십 업체
KMI	Kinder Morgan Inc	에너지	4.8	3.9	38.3	-2.3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운송
LYB	LyondellBasell Industries	소재	10.8	10.2	30.4	-1.8	석유화학 정제, 플라스틱 생산
CHRW	CH Robinson Worldwide	산업재	4.8	4.6	12.2	-1.7	복합 운송서비스 및 물류 솔루션 제공
HUM	Humana Inc	건강관리	26.4	25.7	66.9	-1.2	건강보험 및 서비스 제공
PXD	Pioneer Natural Resources	에너지	3.7	3.2	50.7	-1.0	석유, 가스 탐사 및 생산
MOH	Molina Healthcare	건강관리	8.3	8.1	17.8	-1.0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자 의료서비스 제공
FDX	FedEx Corp	산업재	22.7	22.2	58.0	-1.0	운송업체
STX	Seagate Technology	정보기술	2.0	1.9	12.1	-1.0	데이터 저장 장치 설계, 판매

자료: Eiko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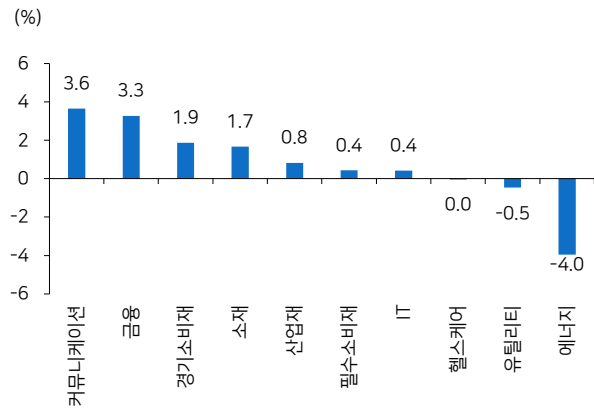
표2 1Q23 순이익 상하회 TOP10 종목 리스트_시총대비 기준

티커	이름	업종	예상 (십억달러)	실제 (십억달러)	시총 (십억달러)	시총대비 (%)	기업내용
FRC	First Republic Bank	금융	0.2	0.2	0.7	12.1	미국 상업은행
GM	General Motors Co	경기소비재	2.4	3.1	46.5	1.5	완성차 제조, 판매
EQT	EQT Corp	에너지	0.5	0.7	12.4	1.4	천연가스 공급, 송전, 유통
MGM	MGM Resorts International	경기소비재	0.0	0.2	17.2	1.1	카지노, 리조트 그룹
KIM	Kimco Realty Corp	부동산	0.2	0.3	11.7	1.0	부동산 투자 신탁 운용
NCLH	Norwegian Cruise Line Holdings	경기소비재	-0.2	-0.1	6.2	0.9	크루즈 선사
VLO	Valero Energy Corp	에너지	2.7	3.1	41.7	0.9	운송 연료, 석유 화학제품 생산, 정유 시설 운영
PHM	Pultegroup Inc	경기소비재	0.4	0.5	14.7	0.9	미국 주택 건설
LYB	LyondellBasell Industries NV	소재	0.6	0.8	30.4	0.8	석유화학 정제 및 플라스틱 생산
DHI	DR Horton Inc	경기소비재	0.7	0.9	37.0	0.8	미국 최대 주택건설
COF	Capital One Financial Corp	금융	1.5	0.9	35.6	-1.7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제공
KEY	KeyCorp	금융	0.4	0.3	10.0	-1.5	은행 지주사
STX	Seagate Technology Holdings	정보기술	0.0	-0.1	12.1	-0.8	데이터 저장 장치 설계, 판매
ZION	Zions Bancorporation NA	금융	0.2	0.2	4.0	-0.8	상업은행
CFG	Citizens Financial Group	금융	0.6	0.5	13.9	-0.5	은행 지주사
WRB	W R Berkley Corp	금융	0.4	0.3	16.4	-0.5	손해보험
PGR	Progressive Corp	금융	0.7	0.4	79.6	-0.4	자동차 및 상해보험
SYF	Synchrony Financial	금융	0.6	0.6	12.4	-0.4	은행 지주사
ALK	Alaska Air Group	산업재	-0.1	-0.1	5.5	-0.4	운송서비스
CHTR	Charter Communications	커뮤니케이션	1.2	1.0	55.2	-0.3	케이블 설치 및 서비스 제공

자료: Eiko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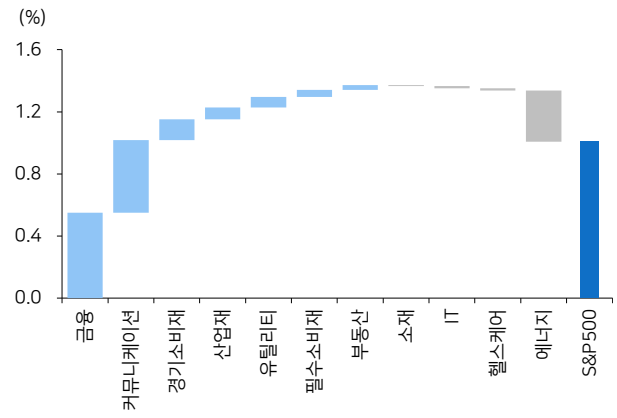
실적발표 시즌 전후 업종별, 종목별 연간 이익전망치 변화

그림7 업종별 2023년 순이익 전망치 변화율_최근 1개월



자료: Eiko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업종별 2023년 순이익 전망치 변화율 기여도



자료: Eiko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3 2023년 순이익 전망치 변화율 상하위 10개 종목_시총대비

티커	이름	업종	시가총액 (십억달러)	순이익_2023년		이익전망치 변화율/시가총액 (%)	기업내용
				최근 (십억달러)	1개월전 (십억달러)		
AAL	American Airlines Group Inc	산업재	9.1	1.7	1.3	3.8	여객 및 화물 운송서비스
PHM	Pultegroup Inc	경기소비재	14.7	2.1	1.6	2.9	미국 주택 건설 기업
STLD	Steel Dynamics Inc	소재	17.9	2.7	2.4	2.1	철강 생산 및 판매
DHI	DR Horton Inc	경기소비재	37.0	3.8	3.2	1.8	미국 주택 건설
PCAR	Paccar Inc	산업재	39.1	4.0	3.3	1.7	디젤트럭 및 부품 설계, 제도
UAL	United Airlines Holdings Inc	산업재	14.6	2.9	2.7	1.6	항공, 운송 모회사
NUE	Nucor Corp	소재	37.3	4.4	3.8	1.6	철강 생산
GM	General Motors Co	경기소비재	46.5	9.5	8.9	1.4	완성차 제조 및 판매
JPM	JPMorgan Chase & Co	금융	413.9	42.8	38.2	1.1	투자은행
C	Citigroup Inc	금융	92.0	12.2	11.4	1.0	금융지주
FRC	First Republic Bank	금융	0.7	-0.6	0.7	-190.7	미국 상업은행
EQT	EQT Corp	에너지	12.4	1.1	1.5	-3.1	천연 가스 공급
ZION	Zions Bancorporation NA	금융	4.0	0.8	0.9	-3.1	상업은행
KEY	KeyCorp	금융	10.0	1.5	1.8	-3.1	은행
NRG	NRG Energy Inc	유틸리티	7.9	1.2	1.5	-2.7	에너지 서비스 생산, 판매
CMA	Comerica Inc	금융	5.6	1.1	1.3	-2.6	상업은행
ALL	Allstate Corp	금융	30.5	1.2	2.0	-2.5	생명보험
MRO	Marathon Oil Corp	에너지	15.0	1.8	2.2	-2.3	원유, 천연가스 탐사, 생산
COF	Capital One Financial Corp	금융	35.6	4.7	5.5	-2.2	금융지주
STX	Seagate Technology	IT	12.1	0.0	0.3	-2.2	데이터 저장 장치 설계, 판매

자료: Eiko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1Q23 실적, 계절성 고려에도 서프라이즈 수준

영업이익 예상치 대비 12% 상회
순이익 예상치 대비 26% 상회

한국 1Q23 실적시즌은 시총 기준 72% 종목이 발표되며 중후반부에 있다. 매출액은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예상치 대비 12.3%, 26.4% 상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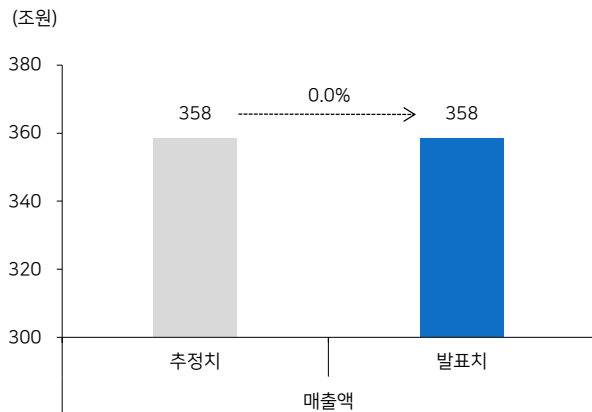
1분기 실적 일회성 비용 고려해도
과거 대비 상회율 높은 수준

한국 1분기 실적시즌은 일반적으로 서프라이즈를 보이는 계절성이 있다. 4분기 실적에서 일회성 비용을 처리하는 종목들이 나옴에 따라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실적이 나오며 2~3월에 이익전망치를 크게 하향조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실적 결과는 과거 평균(영업이익: 과거 +2.1%, 순이익: 과거 +5.9%) 대비 크게 상회한 수준으로 1분기 계절성을 고려하더라도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평가할 만 하다.

자동차, IT가전(2차전지), 기계
20% 가까이 예상치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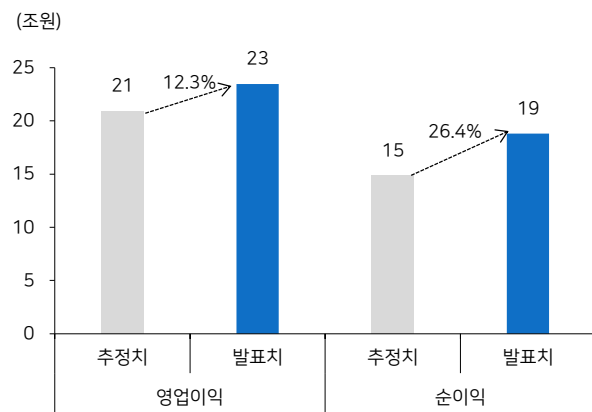
업종별로 살펴보면, 영업이익 기준 자동차, IT가전(2차전지), 상사/자본재, 기계 업종이 20% 가까이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으며 그 외 대부분 업종에서도 예상치 대비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다. 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헬스케어 업종은 예상치 대비 밑돈 실적을 발표하며 부진한 모습이다.

그림9 코스피 매출액 추정치 vs 발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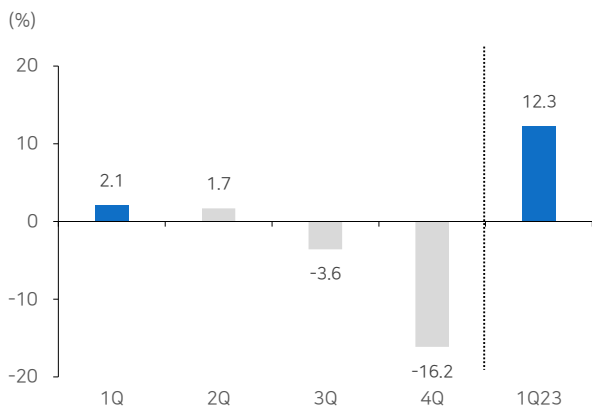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코스피 영업이익, 순이익 추정치 vs 발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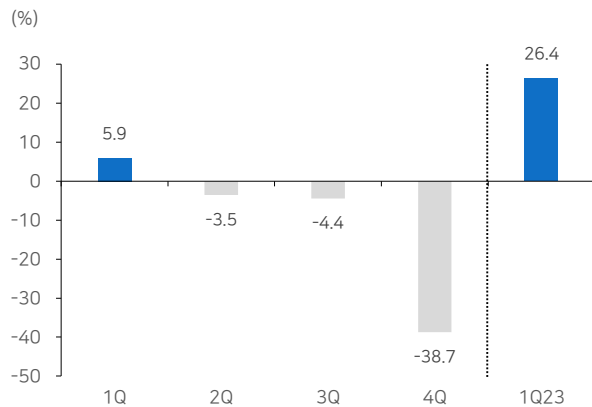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분기별 영업이익 전망치 대비 발표치 괴리율 평균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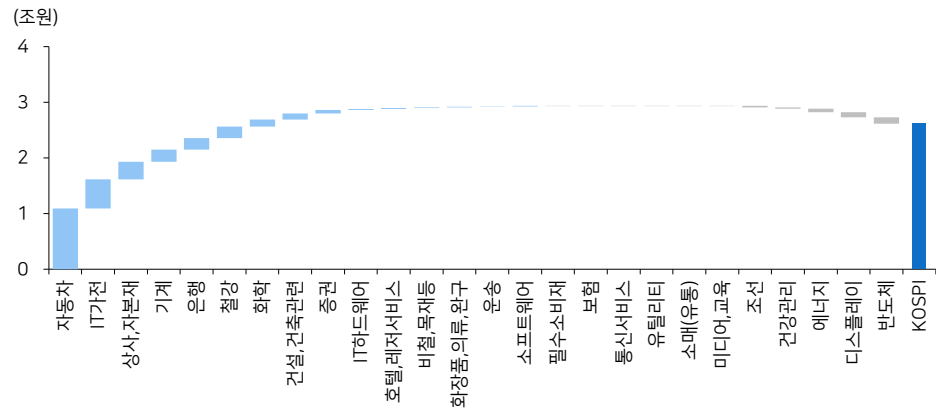
그림12 분기별 순이익 전망치 대비 발표치 괴리율 평균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업종별 1Q23 실적 추정치 vs 발표치

그림13 업종별 추정치 vs 발표치 차이 기여도_영업이익 기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4 업종별 추정치 VS 발표치 차이

	전체 실적발표		진행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추가성과
	(종목수)	(종목수)		추정치	발표치	상(하)회율	추정치(A)	발표치(B)	상(하)회율	추정치(A)	발표치(B)	상(하)회율	
			시총기준 (%)	추정치(A) (조원)	발표치(B) (조원)	(B-A)/A (%)	(조원)	(조원)	(B-A)/A (%)	(조원)	(조원)	(B-A)/A (%)	실적발표후 D+2 (%)
코스피	272	100	72.3	358.4	358.4	0.0	20.9	23.5	12.3	14.9	18.8	26.4	
반도체	6	4	98.1	69.3	69.1	-0.4	-2.6	-2.7	-4.3	-1.7	-1.2	33.7	1.3
IT가전	6	5	99.8	34.7	34.7	-0.1	2.0	2.5	26.6	1.3	1.4	12.8	-0.5
화학	20	11	84.5	24.8	23.8	-4.0	1.4	1.5	10.5	1.0	1.2	15.0	-1.1
자동차	15	6	87.1	78.2	80.5	3.0	5.9	7.0	18.4	4.9	6.4	29.0	-3.4
건강관리	18	8	66.5	2.2	2.2	-2.6	0.3	0.3	-14.6	0.2	0.1	-5.7	1.3
소프트웨어	15	4	19.4	4.7	4.5	-5.6	0.2	0.2	1.2	0.2	0.2	23.9	n/a
은행	13	9	86.5	N/A	N/A	-	8.3	8.5	2.5	6.0	6.4	5.5	-1.2
상사, 자본재	15	7	50.6	26.7	25.8	-3.3	1.1	1.4	27.9	0.9	1.7	87.5	0.4
필수소비재	18	1	3.6	0.7	0.7	0.1	0.1	0.1	-4.2	0.0	0.0	-20.5	n/a
화장품, 의류, 완구	16	5	67.4	6.3	6.0	-5.9	0.5	0.5	-5.1	0.3	0.4	23.0	n/a
철강	7	2	92.5	26.7	25.8	-3.5	0.8	1.0	24.9	0.5	1.0	112.4	0.3
보험	9	0	0.0	N/A	N/A	-	0.0	0.0	-	0.0	0.0	-	n/a
에너지	7	4	37.9	24.5	25.2	2.8	1.2	1.2	-5.0	0.6	0.4	-40.8	-18.3
운송	14	1	17.3	6.5	6.3	-2.5	0.4	0.4	2.2	0.3	0.3	-2.0	n/a
기계	10	7	54.5	7.3	7.8	6.8	0.6	0.8	39.4	0.3	0.5	42.3	7.9
조선	8	4	84.5	10.3	10.0	-2.7	0.1	0.1	-21.8	0.0	0.0	-52.8	n/a
IT하드웨어	11	3	69.0	6.6	6.5	-1.9	0.2	0.3	6.6	0.1	0.2	41.2	1.7
건설, 건축관련	18	9	61.6	17.4	19.0	9.5	0.8	0.9	14.0	0.5	0.7	25.6	1.3
통신서비스	3	0	0.0	0.0	0.0	-	0.0	0.0	-	0.0	0.0	-	n/a
유틸리티	6	0	0.0	0.0	0.0	-	0.0	0.0	-	0.0	0.0	-	n/a
미디어, 교육	9	2	78.5	1.4	1.4	-2.5	0.1	0.1	5.6	0.1	0.1	24.7	n/a
증권	6	1	18.8	N/A	N/A	-	0.2	0.3	34.3	0.1	0.2	39.0	n/a
소매(유통)	10	2	22.4	1.9	1.9	0.4	0.1	0.0	-16.1	0.0	0.0	1.4	n/a
비철, 목재 등	4	2	12.3	1.6	1.6	-1.1	0.1	0.1	17.5	0.1	0.0	-13.7	n/a
호텔, 레저서비스	6	1	31.3	1.0	0.8	-23.8	0.0	0.0	69.6	0.0	0.1	1300.3	n/a
디스플레이	2	2	100.0	5.5	4.9	-10.0	-1.0	-1.1	-9.8	-0.9	-1.2	-39.8	0.0

주: 실적발표후 추가성과는 코스피대비 초과수익률 기준 //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2차전지, 기계, 건설, 헬스케어 실적발표 전후로 상향조정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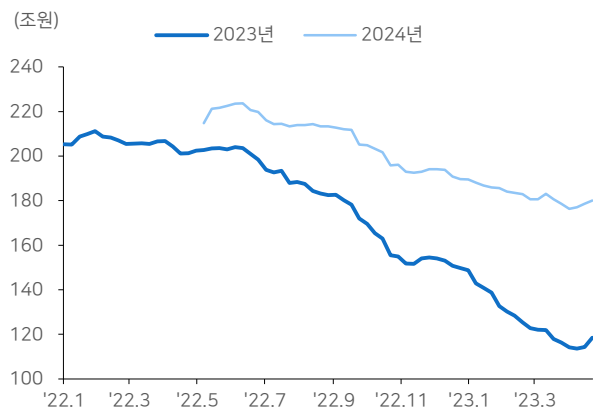
이익 턴어라운드 기대감 확산

2023년 이익전망치는 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하향조정됐다. 지난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순이익 200조원 이상 예상됐으나 4월 110조원 중반대까지 하락하며 그 어느 때보다 실적 하향조정이 가팔랐다. 다만, 실적 서프라이즈 분위기에 힘입어 최근 이익 하향조정세가 완화되며 상향조정으로 전환을 시도 중이다. 이에 따라 13배까지 상승한 코스피 12MF PER이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2차전지, 기계 업종뿐만
아니라 건설, 헬스케어 등
이외 턴어라운드 기대감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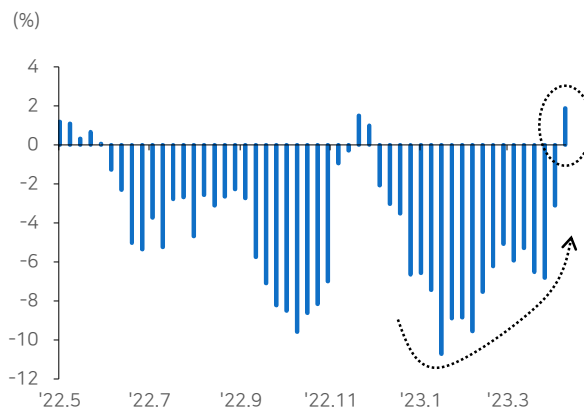
물론,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업종 전반적으로 상향조정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1분기 실적발표 기간 동안 이익 상향조정으로 전환이 나타난 업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자동차, 2차전지, 기계 업종은 연초부터 하향조정세가 멈추며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되는 업종이었다. 이익 기대감이 부재했던 업종 중 건설, 헬스케어 업종은 실적발표 전후로 상향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실적 분위기에 힘입어 그 동안 특정 업종으로 쏠렸던 수급환영이 이익 상향조정이 나타나거나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14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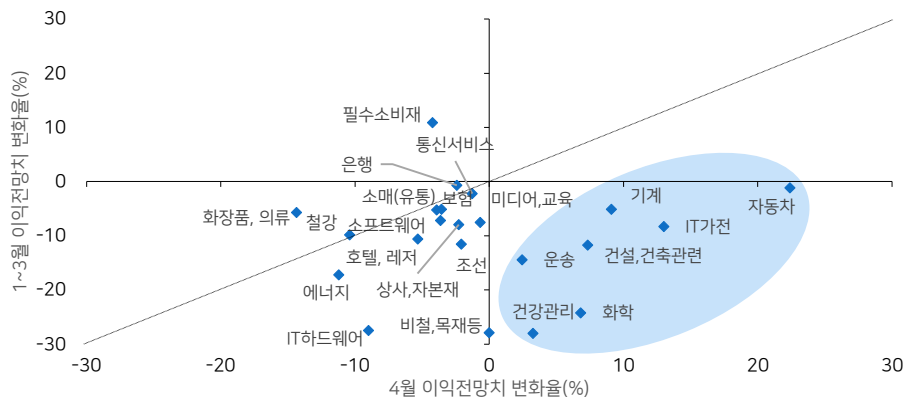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2023년 이익전망치 변화율 추이_1개월 전 대비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업종별 실적발표 전후 이익전망치 변화율 비교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칼럼의 재해석

김동관 연구원

애플의 AI 챗봇은 어디에? (Bloomberg)

빅테크들의 AI 챗봇 기술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OpenAI의 ChatGPT에 이어 구글의 Bard, 메타의 LLaMA, 아마존의 Bedrock이 연이어 공개되었다. 이에 반해 세계 최대 IT 기업인 애플의 챗봇 관련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애플은 과거부터 AI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다. 출시 12년 차가 된 'Siri'는 음성인식 및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애플 CEO는 공식 석상에서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애플의 AI 전문 인력 채용 추이를 살펴보면 LLM 분야보다는 영상 인식 분야의 전문가 채용에 집중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는 오는 6월 출시할 것으로 추정되는 XR 기기와 관련이 있다. 사용자의 사생활과 보안을 중요시하는 애플의 기업 정신은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LLM 기술과 일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한다면 이는 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 영역에서 최초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영역은 애플이 꾸준히 강점을 보인 분야이며 애플의 디바이스 전략과도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경쟁사의 모습과 일견 동떨어져 보이는 애플의 AI 기술 적용 방향의 성패는 XR기기 출시 이후 해당 시장의 확장 동향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AI 관련 인력의 이탈과 경쟁사 대비 늦은 제품 혹은 서비스 출시로 애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제기되고 있다. 산업과 실제 삶의 모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AI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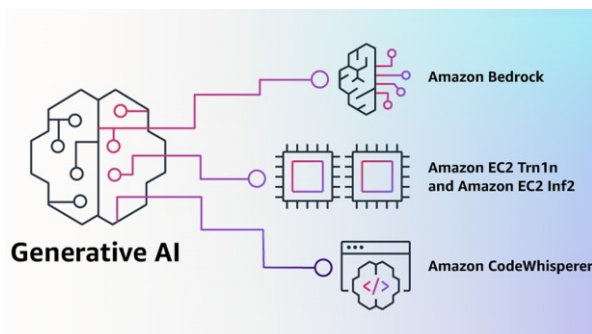
빅테크들의 잇따른 챗봇 출시

빅테크 기업들의 AI 챗봇 경쟁이 본격화

빅테크 기업들의 챗봇 기술 경쟁이 한창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과 메타까지 해당 분야에 뛰어들었다. 2022년 11월 ChatGPT가 출시되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GPT-3을 출시한 직후 구글은 자사의 서비스인 'Bard'를 공개하였다. Meta는 2023년 2월 자사의 챗봇 모델인 'LLaMA'를 발표했다. 아마존 또한 이달 기업 맞춤형 AI 서비스 'Bedrock'을 출시하였다.

반면 세계 최대 IT 기업인 애플의 소식은 잠잠하다. 신기술의 도입을 서두르지 않는 모습은 그간 애플이 자주 보여 온 모습이다. 하지만 신기술의 도입, 이후 반복적인 안정화 작업을 거치며 축적되는 경험 차이가 계속해서 확대될수록 그 격차를 극복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애플의 AI 연구의 행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1 아마존의 생성형 AI 서비스 'Bedrock'



자료: 아마존

그림2 Meta AI의 'LLaMA'

The focus of this work is to train a series of language models that achieve the best possible performance at various inference budgets, by training on more tokens than what is typically used.

For instance, LLaMA-13B outperforms GPT-3 on most benchmarks, despite being 10× smaller.

At the higher-end of the scale, our 65B-parameter model is also competitive with the best large language models such as Chinchilla or PaLM-540B.

자료: Meta AI

애플의 AI 기술 연구개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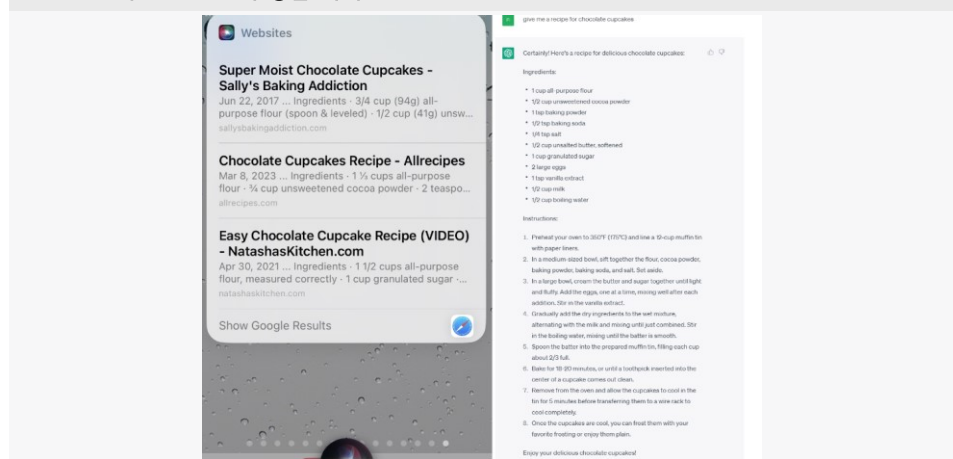
애플 또한 AI 기술 적용도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음

애플은 AI 기술을 과거부터 꾸준히 연구해왔다. 출시한 지 어느덧 12년이 된 'Siri'는 음성인식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애플은 음악 추천 서비스 'Shazam', 개인화 디지털 잡지 서비스 'Texture' 등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을 인수해 자사의 생태계에 통합시키기도 했다. 지난 2월 애플의 CEO는 AI 기술이 애플의 "핵심 문제(major focus)"라고 했으며 애플워치, 아이폰 등의 충격 감지 기능처럼 이미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의 LLM 기반 챗봇과 애플의 'Siri'는 큰 차이 존재

분명한 것은 애플의 AI 기술 응용처가 OpenAI의 ChatGPT로 대표되는 Large Language Model(LLM)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동일한 질문을 Siri와 ChatGPT에 던져봄으로써 이 차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Siri의 답변이 ChatGPT의 답변보다 한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Siri가 "지금 몇시야?"와 같은 물음을 처리하기에 적합한 'Command and control system'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ChatGPT의 답변은 실제 인간과 같은 느낌을 준다. 이는 인터넷에서 얻어진 초대형 데이터셋에 기반해 텍스트를 생성하는 훈련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림3 Siri와 ChatGPT의 응답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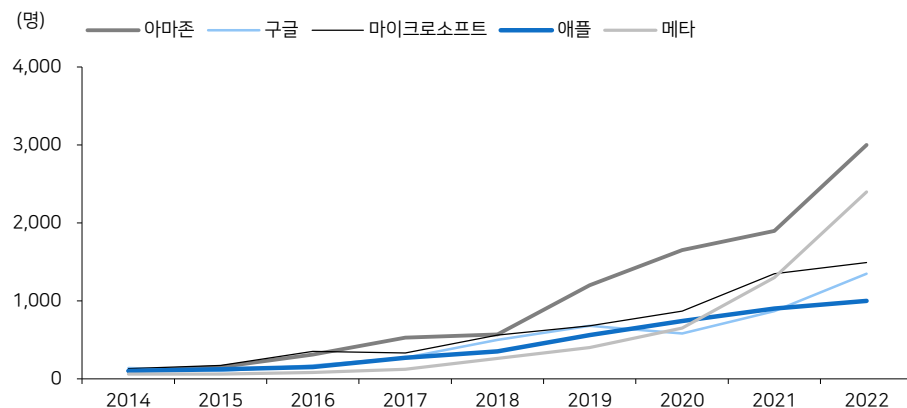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Apple, ChatGPT

애플의 AI 인력 채용은 영상 인식 분야에 집중

대형 채용 플랫폼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육 개월 간 LLM 전문가보다 영상 인식(Visual AI) 전문가 채용에 집중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 인식은 컴퓨터가 이미지를 식별하는 것과 관련된 AI 분야로 애플이 준비 중인 MR 헤드셋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다. 한편 최근 수 년 간 애플에서는 고위급 AI 엔지니어들의 이탈이 이어졌다. 작년 5월, 애플의 재택근무 축소 정책을 이유로 이안 굿펠로우(Ian Goodfellow) 전 애플 머신러닝 개발 디렉터가 회사를 떠났다. 또한 블룸버그는 지난 4월 애플의 클라우드 VP 마이클 애벗(Michael Abbott)의 사직을 보도했다. 이러한 엔지니어들의 이탈은 AI 개발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4 빅테크 AI 전문 인력 채용 추이



자료: Glass.ai,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애플이 생성형 AI를 한다면?

LLM 기술의 개방성은 애플 특유의 사생활·보안 중시 정신과 상반

애플 특유의 기업 정신은 LLM 기술의 기본 원칙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애플의 경영진은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사생활과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애플의 에코시스템 안에서는 경쟁사보다 개인 정보의 공유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LLM 기술이 수 많은 출처로부터 무수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술인 만큼 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에 보수적인 애플의 정책과 상반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생성형 AI 적용 시 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 영역이 유력

애플이 생성형 AI를 적용한다면 사용자의 사진이나 자체 제작한 음악을 AI 시스템으로 가공해주는 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 영역에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음악과 영상 창작자들을 위한 제품 개발은 애플이 초기부터 가장 잘 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이러한 방향은 정보의 직접적인 원천보다 정보와 엔터테인먼트의 통로(gateway)가 되기를 추구하는 애플의 디바이스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

후발주자로서 성공한 경험이 많은 애플

애플은 다른 업체가 개척한 새로운 분야에 상대적으로 늦게 진출하고도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많은 사례가 있다. 음악 플레이어 아이팟부터 아이폰, 에어팟까지 시장의 후발주자로 출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현재도 경쟁사들이 OLED 노트북, 폴더블 스마트폰 등을 이미 판매하고 있는 것에 반해 애플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해당 제품들을 출시한 바가 없다.

소프트웨어에서의 성공은 하드웨어 영역과 다를 수 있어

하지만 하드웨어에서의 성공이 반드시 소프트웨어 영역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않는다. 온라인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애플 또한 Apple Maps, iTunes Ping 등을 출시하고 정착시키는데 난항을 겪은 바가 있다. 이는 일정 부분 애플의 디자이너 중심 기업 문화에서 기인한다. 대규모의 온라인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탈중양화된 엔지니어 중심 기업 문화가 유리하다.

애플의 AI 전략은 XR 기기 출시
이후 성패가 갈릴 전망

XR 기기 출시 이후 관련 시장의 성장이 이어진다면 해당 분야에 집중한 선택은 성공적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 한편 AI 관련 인력의 이탈과 경쟁사 대비 늦은 제품 공개 등으로 애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다수의 빅테크가 집중하는 LLM도, 애플의 영상 인식 AI 기술도 산업계는 물론 실제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원문: *Hey Apple, Where Are Your Chatbots? (Bloomberg)*